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開發體制的 두가지 類型

- 韓國의 不均衡模型과 臺灣型 兩極構造 -

田村紀之

(TAMURA Toshiyuki : 東京都立大學)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 開發體制的 두가지 類型

- 韓國의 不均衡模型과 臺灣型 兩極構造 -

田村紀之

(TAMURA Toshiyuki : 東京都立大學)

# 開發體制的 두가지 類型

- 韓國의 不均衡模型과 臺灣型 兩極構造 -

田村紀之

(TAMURA Toshiyuki : 東京都立大學)

## [1] 들어가는 말

筆者의 최근 關心은 「東아시아模型」의 典型이라고 불리는 韓國과 臺灣의 經濟發展 過程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宣傳된 兩國 開發體制的 類型化를 試圖해 보고 同時에 開發體制 그 自體가 가지는 多面性을 考察하는 데 있다. 단지 거기서 理論的 構造의 妥當性을 檢證하기 위한 努力은 現在 그 作業 自體가 進行中이기 때문에 全般的인 論議는 아직 構想段階에 머무르고 있다. 이 本稿에서는 우선 韓國의 開發體制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臺灣의 境遇와 比較해 가면서 이들의 問題에 接近해 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소위 「開發體制」를 經濟開發을 위한 制度的 機構로 理解한다. 이같은 意味의 開發體制는 新興開發途上國의 境遇 내쇼날리즘(nationalism)을 基礎로한 開發 意慾이 國家體制의 一部로 編入되어져 國民의 멘달리티(mentality)를 規定함과 同時에 政治·經濟的 여러制度的 形態로 結實 맺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的 確立過程도 制度的 整備라고 하는 觀點을 中心으로 생각해 두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단, 그 境遇에도 다음과 같은 事情에 留意하는 것이 重要하다.

우선 韓國 固有의 事情이라고 하면, 아마 世界에서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同質」的인 民族集團이지만 單一 國民國家를 形成할 수 없는 南北 分割統治라고 하는 事態를 거쳐 韓國戰爭에 의해 南北이 分斷된 事實이 있다. 따라서 當然한 일이지만 이같은 歷史的 背景이 韓國의 내쇼날리즘 乃至는 開發主義에도 그 나름대로의 影響을 주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國民黨의 臺灣支配에서 보이는 開發主義와 微妙한 差異에는 이러한 다른 事情들이 反映되어 있을 可能性이 높다. 게다가 重要的 것은 解放後에 韓國이 美軍政期라고 하는 美國에 의한 直接支配를 體驗했다는 것이다. 韓國의 開發時代를 朴正熙 政權 以後라고 생각한다면 「開發前史」로써 李承晚 政權의 開發指向과 開發體制的 形成努力에 대해서 注目해 둘 必要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國民黨 政權의 경우 開發前史의 所在가 問題가 된다.

다음으로 소위 여러 新興獨立國家들의 많은 指導者들이 經濟實績을 自身の 權力

의 「正統性」을 證明할 때 植民地遺制를 自覺的이고 選擇的으로 「活用」해왔다. 但只, 「植民地 내쇼날리즘」의 이런 側面에는 韓國과 臺灣의 脫植民地化 過程에서 어느程度 展開되었는가에 대해서는 以後에 研究 究명해야할 點들이 많이 남아있다. 一般的으로 歷史的 내쇼날리즘이 「想像의 共同體」(B.Anderson) 였다고 해도 이것을 國民國家의 開發體制로서 結晶化 시킨 메카니즘에는 韓國과 臺灣만을 들어봐도 큰 差異가 있을 것이다. 韓國의 「分斷 이데올로기」와 臺灣의 「省籍矛盾」이 이 問題를 解決하는 重要한 열쇠라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 [2] 開發獨裁와 國家資本主義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에 대해서는 이것을 「開發獨裁」라는 視點에서 說明하려고 하는 論者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用語는 開發과 獨裁의 相互關係를 強調한다고 하는 利點을 가지지만 「統治效率」의 長點을 基準으로한 肯定的 評價를 前提로 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져 버릴 수 있다. 더욱이 筆者가 愛用해 온 「權威主義」 概念도 過去로부터 社會心理學 用語로 많이 사용되어 온 背景이 있는 만큼 混亂의 根源이 될 소지가 있다. 한편 韓國이나 臺灣의 開發體制는 國家의 強力한 市場介入에 의해서 工業化를 통한 經濟自立을 겨냥했다라는 意味로 자주 「國家資本主義」라고 불린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最近, 이 用語는 「後期開發」 資本主義 여러 나라의 開發戰略을 特徵 짓는 말로써 使用되고 있다. 그 戰略의 特徵은 對內的으로 可能限한 政策 手段을 動員해서 國內資源을 (重化學)工業에 集中的으로 配分함과 同時에 對外的으로는 保護主義的인 여러 가지 手段에 의해 輸入代替와 輸出支援策을 잘 組合시킨 이른바 「戰略的 貿易政策」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開發獨裁論에서 보아도 國家資本主義論에 依據한 경우에도 政治體制와 經濟體制는 一體인 것으로써 把握되고 國家 類型의 하나로써 要約되어져 버린다. 즉, 同一類型의 國家는 類似한 政治體制를 基本으로한 類似한 開發體制를 構築하고 비슷한 產業·貿易政策을 採用하게 마련이다. 政治體制와 經濟體制에 서로 겹치는 部分이 크지만 이 論議는 論理的으로 難點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歷史的 事實에도 반드시 合致하지는 않는다. 本稿에서는 이들 用語를 經濟體制에 限定하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特徵을 가진 開發體制의 意味와 거의 같은 意味의 말로 解釋하고 互換的인 것으로써 使用한다.

## [3] 李承晚, 朴正熙 政權의 國家資本主義

美軍政期가 韓國社會에 준 衝擊의 크기는 아직 充分히 解明되어진 것이 아니라

以後의 研究에서 깊이있게 研究되리라 期待되어진다. 但只 國家機構의 整備와 運營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限定해서 말하면, 軍政이 對應할 수 없는 部分의 거의 大部分을 植民地 時代의 制度的 裝置와 人材의 의해 補完한 것이 重要하다. 結果로써 李承晚 政權 時代에 進行된 國家 形成은 그 「反日」의 姿勢와는 反對로 美國式的 骨格에다 日本的인 여러制度로 살을 붙인 격이 되었다. 그후 混亂의 時代를 거쳐 韓國이 겨우 自力으로 機構整備를 마친 것은 60年代에 들어와서라고 봐도 좋다. 當然하지만 이것은 韓國의 國家形成이 朴正熙 政權의 經濟開發指向과 一體化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但只 個別的으로 볼 경우, 法制度上으로는 完備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實際는 一部 또는 全部가 停止되고 有名無實化된 事例도 적지않다. 이것을 「軟性國家」(G.Myrdal)의 要素로 볼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로 나뉜다.

韓國의 開發體制의 形成過程을 制度整備의 面에서 概觀해 보자. 憲法과 政府組織法 制定(1948年)에 의해서 國家의 骨格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美國의 援助에 依存해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는데 全力을 쏟는 것이 建國當初의 實情이었다. 國庫金과 外貨를 政府의 손으로 一元的으로 管理함과 同時에 日帝資產(歸屬資產)의 接收, 새로운 中央銀行(韓國銀行)의 設立등 經濟制度의 整備를 開始한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韓國戰爭이었다. 戰後 復興을 위해서 經濟再建案은 모두 戰爭末期頃부터 國際聯合(美國)의 손에 의해서 構想되어 왔지만 어느것도 李承晚 大統領이 受容하지 않았다.

開發體制와 關連해서 注目되어온 것은 韓國 憲法의 「世界的으로 좀처럼 類例를 찾아볼수 없는 詳細한」(尹龍澤)經濟條項의 여러規定이다. 우선, 1948年の 制憲憲法은 그 第6章을 「經濟」라고하고 극히 「國家資本主義」의 色彩가 강한 條文을 配置하고 있다. 즉, 우선 第84條에서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기하기 위해서 「각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한다」라고 한데다가, 重要 地下資源의 國有(第85條), 農地의 分配(第86條), 運輸·通信·金融 等の 國公營과 對外貿易의 國家統制(第87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의 必要性이 있는 境遇 私企業의 國公有 移轉(第88條) 등을 명시하고 있다. 韓國憲法의 經濟規定은 自由民主主義的인 諸要素를 強調한 形態로 改正을 거치면서도 現在 第6共和國 憲法(1987年 第9次 改正)에서 조차 오히려 細分化되는 形態를 繼承하고 있다.

李承晚 政權이 「國家資本主義」의 立場을 鮮明하게 했다는 「戰後 復興 5개年 計劃」의 開始는 1954年이지만, 政治的 混亂 때문에 充分한 成果를 거두지 못한 채 이 政權은 「4·19」革命에 의해 崩壞되었다. 後續 政權도 短命으로 끝나고 經濟

開發을 위한 體制 形成은 事實上 5.16 軍事革命 以後인 1960年代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의 輸出 中心主義 高度成長路線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50年代의 政策 속에서 보여진다. 특히, 歸屬資產을 拂下 받아 誕生한 財閥系 企業이 韓國 貸出에 있어 財閥이 부여받은 特惠措置가 韓國型 輸出支援金融의 原初의 形態가 되었다는 점에 注目하고 싶다.

또한, 1954年 勞動基準法은 그후의 勞動法과 社會福祉體系의 整備 (특히, 1963年의 産業災害補償法)의 出發點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韓相範은 이들 法案의 立法을 「實情에 있어서는 現實적으로 效力이 保障되지 않는 “看板法”」이라고 했다. 以外에 法整備의 觀點에서 보면, 刑法定이 1953년에 있었던 것에 비해 民法은 1958年, 商法은 1962년에 가서야 制定된 事實들도 當時의 時代的 背景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한편 韓國에서는 美軍政期 以後 法の 空白狀態를 피하기 위해 特別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從來의 法條項을 適用하는 措置가 實施되었다. 結果적으로 法制度面에서 보면 植民地 法制가 軍政時代에 이어 新政府에도 繼續적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적지 않다. 이것이 植民地 殘滓를 남기게 된 要因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어쨌든 治安·刑事制度面에서 植民地 法制의 惡影響은 지금까지 指摘되어 온 事項들이다.

1950年代 末부터 1960年代 後半까지 政治制度面에서도 經濟組織面에서도 經濟開發主義를 기치로 하는 國家體制가 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治安 維持機構는 制憲憲法附則 第101條 反民族行爲 處罰規定을 基礎로한 「反民法」(1948年)과 國家保安法(1949年)은 韓國戰爭中の 非常 措置에 의해 基本的인 構造를 設定했다. 이들 중 많은 數는 廢止 또는 改正되어 1960年 「新國家保安法」 이듬해 61年 「反共法」으로 結實을 보았다. 反共 이데올로기를 「國是」로 해서 導入한 外資를 발판삼아 여러가지 物的·人的 資源을 經濟開發에 總動員하기 위한 裝置가 만들어졌다. 이 裝置를 稼動시키기 위한 指針으로써 役割을 한 것은 周知의 「第1次 經濟開發 5개년 計劃」(1962年)이었다. 그러나 當時의 韓國은 南北分斷에 의해 工業基盤의 喪失, 韓國戰爭에 의한 破壞와 戰後 復舊가 늦어져 三白産業(原綿, 原糖, 밀가루) 또는 三粉産業(原綿産業이 시멘트로 바뀌어) 등의 鑛工業밖에 갖고 있지 않은 貧困한 農業國이었다. 第1次 計劃이 原材料 輸入에 依存한 輕工業 製品의 加工輸出에 의한 成長指向의 이었다는 것은 그 以外에는 選擇할 餘地가 없었다는 現實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韓國의 經濟開發은 그후 第2次計劃, 第3次計劃을 거듭함으로써, 輕工業에서 重工

業으로 더욱이 重化學工業으로 基盤産業을 重心移動시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成功시켰다. 이 過程에서 朴正熙 政權은 權威主義의 傾向을 強化, 維新憲法을 制定(1972年) 하기에 이른다. 이 體制는 發足한 다음해의 第1次 石油危機에 打擊을 입었으나 中東建設 參加 등에 힘입어 多幸히도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石油問題의 對應이 늦어지는 結果를 낳아 1979年 第2次 石油危機에 커다란 打擊을 입었다.

또한 政治體制로서 絶頂期에 있던 韓國의 權威主義體制도 國內外 壓力에 의해 스스로의 基盤을 侵食당했다. 우선 國內적으로는 長期間의 高度成長路線이 財政·金融政策 手段을 總動員 輸出一邊倒의 政策이 一貫되게 推進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體質化」되어 重化學工業의 後面에서 進行된 農業의 停滯는 農村社會의 病弊를 改善할 有效한 政策이 수립되어지지 않은 채 地域間 農工業間 格差의 擴大는 政治社會적으로 問題가 되었다. 1977년에 本格化된 「새마을 運動」도 이러한 農村開發의 緊急性을 反映한 것이었다. 또한 國防과 社會福祉事業에 充當하기 위한 防衛稅(1975年), 附加價值稅(1977年)의 導入이 決定되었으나 結果적으로는 福祉公約은 뒤로 미루어져 重化學 關連 設置의 擴充에 拍車를 가하는 結果를 낳았다. 이것은 財閥間의 過當競爭에 의한 重複投資라고하는 側面도 있었으나 그후 全斗煥 政權에 의한 強權的 重化學 工業調整(1979年)에 맡겨지게 되었다. 한편 賃金上昇에 의한 韓國製品의 國際競爭力 低下와 先進工業國들의 保護主義 政策의 批判과 後發開發途上國의 追擊 등의 要因에 의해 韓國政府는 輸出産業의 強化育성과 國內市場 開放을 同時에 並行해서 推進하는 글자그대로 어려운 政策運營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第1次 輸入自由化 計劃은 1978년에 發表되었다.

다시말해 1960년부터 70年代에 걸쳐 韓國開發體制는 다음과 같이 特徵지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韓國 外資政策은 直接投資를 抑制하고 借款中心으로 一貫되었다. 이것은 強權的 支配者라고 하더라도 外國資本, 具體적으로 日本資本에 의한 再支配를 警戒하는 國民感情을 無視할 수는 없는 側面이 있었다. 또한 借款 中心主義 外資政策이야 말로 韓國型 開發體制에서는 가장 採擇하기 쉬운 政策手段이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韓國型 體制의 最大特徵은 政府導入에 의한 借款이 財政과 金融이 一致된 輸出支援 政策金融 루트를 통해 財閥企業에 分配되는 構造라는 것이다.

둘째, 輸出支援 內容은 輸出實績과 特惠措置를 連結시키는 手段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輸出企業은 採算을 도외시하더라도 輸出을 增加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結果 政府와 財界間에 癒着이라는 病弊를 낳게 되었다. 이러

한 輸出支援體制가 貿易政策으로서 그다지 「效率的」이지 않았다는 것은 貿易收支가 一時的이지만 黑字轉換을 한 것이 겨우 1986년에 가서야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推定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韓國開發體制는 反共을 國是로 해서 經濟開發主義를 고무, 國民을 總動員했다. 이를 위해 準備된 政治·治安·社會機構를 채찍으로 삼는다면 經濟成長의 結果를 國民들에게 還元하는 것은 즉, 다시말해 '사탕'이 된다. 그러나 成長의 果實物이 還元되는데는 時間이 걸리고 國民의 忍耐가 前提條件이 된다. 軍事革命政權의 「革命公約」중 福祉社會의 實現은 政權批判이 높아질 때에 國民輿論을 잠재우기 위한 手段(사탕)으로 내놓아졌을 뿐 언제나 保留對象이 되어왔다. 韓國이 最低賃金法을 制定 國民年金制度를 導入한 것은 1988년이 되어서였다. 물론 여기서 國防費의 重壓이라는 制約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開發體制의 形成過程을 政治 엘리트(支配層)의 形成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正統的인 支配層이 除外되고, 軍인이 政治뿐만 아니라 社會全般에 進出하는 過程이 있으며 새로운 政治 엘리트의 充足員으로서 軍·官·財界 聯合이 形成되는 過程이었다. 이러한 聯合의 形成을 外部促進要素로서 東西對決의 最前線에 位置하고 있는 韓國의 地政學의 事情과 軍事的으로나 政治·經濟的으로도 韓國을 內外的으로 支援해 온 美國의 存在를 들 수 있다. 韓國에서 커다란 政治事件이 報道될 때마다 「美國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도 이러한 韓美關係를 念頭해 둔 것이다. 經濟的次元에 한하면 여기에 日本의 存在를 添加할 수 있다.

끝으로 韓國의 境遇 「超越的」인 權力을 가진 大統領과 側近의 一元的 指導力, 創業者의 全面的 總括下에 있는 巨大財閥 사이에서 緊密한 互惠關係를 形成해 왔다. 官僚가 基本的인 政策立案에 參加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總體적으로 보면 官僚機關은 執行機關으로서 開發에 貢獻해 왔다. 立法部인 國會의 地位도 始終, 從屬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財閥系 企業과 나머지 非系列企業과의 사이에는 資金力, 技術力, 人材 等の 側面에서 커다란 格差가 存在하기 때문에 非財閥系 企業은 이러한 互惠關係의 直接的인 參與 機會로부터 除外되었다. 이와 같이 韓國의 權力構造는 財閥과 最高 權力層과의 直接的인 連繫가 權力의 基本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構圖를 基盤으로 많은 數의 軍人 出身者가 指導層에 編入된 結果 韓國社會의 各分野에서 軍人出身의 「落下傘 人事」가 排出되었다. 行政府와 議會의 相對的 劣位라는 特徵에도 불구하고 軍人 엘리트가 高位官僚, 議會指導者, 國營企業 또는 政府投資 金融機關의 經營陣으로서 活躍, 上意下達의 指令體系를 內部로부터 떠받쳤다.

篠原三代平은 以上과 같은 韓國의 工業化의 過程을 하이에크(F.Hayek) 過程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 韓國은 外資를 발판으로 한 信用創造에 의해 經濟資源을 投資財 (및 輸出消費財) 部門에 集中的으로 配分해왔다. 그러나, 그 結果로서 發生한 國內消費財 部門과의 不均衡은 後者가 병목이 되는 것에 의해 인플레이션을 常態化시키는 것과 함께 強制貯蓄(forced saving)을 통해 再投資를 위한 國內資金을 準備해왔다는 것이다.

#### [4] 臺灣型 開發體制와의 比較

以上の 觀察을 臺灣의 境遇와 簡單하게 比較해 보자. 이는 바와 같이 臺灣은 重化學工業을 國營企業으로 育成하는 姿勢를 維持해 왔다. 게다가 臺灣의 權威主義 體制는 政·官·軍·財의 全部를 國民黨이 統一的인 支配下에 두려는 方式이었다. 그 結果 內需市場에서 排除된 民間 中小企業은 輕工業品 加工輸出에 活路를 걸 수밖에 없었다. 劉進慶의 「國家資本과 民間資本의 兩極構造」가 이것이다. 이점에서 臺灣의 開發體系와 韓國은 確實하게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들면 外貨導入에 관해서는 在外 中國人 資本의 導入을 目的으로 했기 때문에 直接投資에 대해서는 꽤 慣容的이었다.

國家指導者의 開發指向이 體制로써 結實을 맺을 典型으로 維新體制下의 韓國과 戒嚴令下의 臺灣을 對比해서 보자. 當時의 韓國 政治的 指導層(政治엘리트)은 말할 것도 없이 軍부와 官僚였다. 이 兩者와 密接하게 關係를 맺는 것에 따라 經濟的 利益을 늘려왔었던 것이 財閥 리더들이었다. 韓國에 있어서 輸出産業의 雁行形態의 發展의 歷史는 그대로 財閥의 肥大化의 歷史다. 이것에 대해 臺灣의 境遇에는 피라미드形의 堅固한 組織을 가진 國民黨을 基本으로 黨과 政府의 官僚 및 軍의 首腦가 一體된 政治 엘리트를 構成해 왔다. 重要한 것은 이 支配機構가 거의 「外省人」에게 獨占되어 왔다는 事實이다. 舊日帝 財産을 政府가 接收해서 그후의 經濟建設에 活用하려 했던 점에서는 韓國과 同一하지만 臺灣에서는 重化學工業關連의 基幹産業의 大部分을 國營企業으로 國家의 管轄下에 두었다. 그 結果 國營企業은 外省人의 經濟的 權益의 源泉이 되었다. 民間人에게 拂下를 통해서 財閥을 育成해온 韓國과는 이점에서 顯著하게 對照的이다.

政治體制로서는 큰 差異를 보이는 韓國과 臺灣이지만 勞使(資)關係에서는 類似한 機構를 두어서 勞動運動을 抑制해 왔다. 코-포라티즘(協調組合主義)的인 組織을 잘 活用함과 함께 國民 欲求를 그 組織을 통해서 吸收시키고 福祉施策으로써 還元하는 方式 「코-포라티즘의 包攝」이라고 불리우는 官民協調機構가 그것이다. 이것을 「

國家資本主義」特徵의 하나로 보는 論者도 있다. 公的인 治安·情報機關과 私的 暴力組織이 이 協調機構를 「補完」해 왔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다. 단지 韓國에서는 이런 種類의 協調機構는 勞動者의 包攝이라는 面에서는 臺灣보다 덜 徹底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反對로 臺灣에서는 海外 화교·화인資本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民間企業가 사이의 相當數가 「脫漏」部分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以上을 要約해 보자. 韓國의 工業化 過程을 藤原三代平의 說에 따라 「하이테크 過程」이라고 본다면 그 特徵은 財閥系 大企業에 의한 投資財 및 輸出消費財 部門과 非財閥系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한 國內消費財部門 間의 不均衡 發展過程이 된다. 投資·輸出消費財 部門에의 資源의 「傾斜配分」을 可能하게 한 것은 政府에 의한 信用創造였으며, 그 資源으로써 外資導入이었다. 當然한 일이지만 이 不均衡過程은 두 事態를 가져와 韓國經濟의 「體質」이 되어버렸다. 그 하나는 高度成長期의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이고 이것이 所得再分配에 의한 貯蓄率의 上昇에 貢獻했다. 財閥系 企業의 衰弱한 財務體質도 이것에 附隨的인 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다른 하나는 성급한 重化學工業化 政策이 投資·輸出消費財 部門에 自主技術開發의 餘地를 부여하지 않고 結果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 完成品 分解에 의한 技術習得)과 턴-키(turn-key : 즉석완성 技術도입)方式에 의한 輸出實績 向上에만 專念하고 만 것이다.

이것에 대해 臺灣의 경우, 「民生主義」體制가 國營基幹産業(重化學工業)에 의한 國內市場의 獨占的 地位를 要求해 왔기 때문에 輸出은 오로지 民間의 中小企業에 의한 輕工業品을 주력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劉進慶이 말하는 「兩極構造」가 그것이다. 確實히 臺灣型 開發體制와 重化學工業과에 있어서는 눈부신 成果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重化學工業을 輸出産業으로써 活用한다는 面에 있어서는 韓國에 뒤지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國營企業의 比重은 最近 低下一路를 걷고 있다. 이 意味에는 臺灣이 必야히로 現在, 開發形成期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臺灣의 兩極構造는 開發初期의 物價急騰을 克服한 뒤에는 韓國처럼 高인플레이션, 高成長이 아닌 「堅實」한 經濟運營을 可能케 했다. 資金調達面에서도 在外 화교·화인 네트워크의 存在는 韓國에는 없는 利點이 되었다. 結果적으로 臺灣의 貿易收支는 長期的인 黑字를 구가해 慢性的인 赤字에 苦悶하는 韓國과는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財閥 主導型과 國營企業 主導型의 差異의 反映이라고 하면 그뿐이지만 所得分配의 面에서도 臺灣은 韓國보다도 良好한 實績을 남기고 있다.

#### [5]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의 多面性

現實의 開發獨裁는 이 概念이 가지는 多義性 그대로 多面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이고, 韓國과 臺灣의 境遇에도 例外는 아니다. 여기서는 以上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論點을 指摘하고 그것으로써 本稿의 結論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소위 「中南美模型」과 比較 問題가 있다. 말할 것조차 없이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는 이것과 比較 對照되는 個別 例의 差異에 의해서 달라진 側面을 浮上시키게 된다. 우선 中南美諸國을 比較 例로 들더라도 韓國에는 韓國 나름대로 臺灣에는 臺灣 나름대로의 「特異」性이 있는 것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軍部·官僚支配型」權威主義 라고 불러도 좋은 韓國의 朴正熙 體制에 대해서는 特히 그 政軍關係의 面에서 상당한 獨特한 事例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言及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臺灣의 「一黨支配型」制度도 國民黨의 「共產世界 以外에는 어떤 政黨도 이길수 없는」(田弘茂) 水平的 및 垂直的인 統制力이라고 하는 點에는 相當한 特異한 分類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經濟實績에 關係는 많은 中南美諸國 보다도 훨씬 良好한 結果를 자랑하는 韓國과 臺灣 兩國이지만 이러한 事實과 韓國과 臺灣의 「開發」面과 「獨裁」面의 어느쪽을 강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自然히 別個의 問題이다.

둘째, 어떠한 強權的인 支配者라도 해도 經濟 狀態의 惡化는 權力의 正統性의 危機를 招來할 만큼, 經濟運營에는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政經不可分」體制인 臺灣에 있어서조차도 權力者는 經濟運營에 萬全을 기할 責務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權力者는 그 經濟政策이 成功하면 할수록 틀림없이 그 成功이 남기 시작한 여러勢力에 의해서 正統性은 相對的인 것이 되고 權力基盤을 侵食되고 있다. 두번에 걸친 石油危機에 있어서 各國의 對應狀態로부터 이 問題를 檢討하는 것은 극히 興味津津하다. 1973年의 第1次 石油危機는 많은 權威主義 政權의 退陣을 재촉했지만 韓國과 臺灣은 強權支配體制를 持續했다. 하지만 1979年 第2次 石油危機때에는 韓國의 朴正熙 維新體制는 崩壞되고 臺灣은 戒嚴體制를 繼續 維持했다. 臺灣의 權威主義 體制가 「制度」의 正統性 困難을 「人的要素」의 正統性으로 補完함에 따라 長期的인 安定性을 確保하는 것이 可能했다(田弘茂)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카리스마的인 性格을 갖춘 人的要素를 결한 韓國의 경우, 指導者의 交替는 結局 制度의 改廢를 招來했다. 韓培浩는 이같은 일을 가리켜 韓國의 權威主義는 「制度化」에 失敗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는 第1次 石油危機를 克服한 韓國의 第4共和國은 別途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쿠데타에 의해 權力의 자리에 오른 軍人指導者가 政權掌

出所	擴張期間	收縮期間	底頂点	底頂点
韓國銀行 [1977]	10	23	1957. 1	57. 11
			1957. 11	60. 6
			60. 6	63. 7
			64. 6	71. 8
			72. 6	72. 6
			74. 5	75. 7
			86	23
			10	14
			96	37

出所	擴張期間	收縮期間	底頂点	底頂点
統計庁 [1995]	23	44	1972. 3	75. 6
			1974. 2	79. 2
			80. 9	80. 9
			85. 9	85. 9
			88. 1	88. 1
			89. 7	89. 7
			93. 1	93. 1
			28	18
			18	24
			46	42

(出所)

韓國銀行『韓國의 金融政策』、1977年。  
 統計庁『光復以後 50年間の 經濟日誌』、1995年。  
 長田 博・平塚大祐(編)『アジアの成長循環』、ア  
 シア經濟研究所、1992年。

出所	擴張期間	收縮期間	底頂点	底頂点
長田 博・平塚大祐(編) [1992]	10	15	1973. 5	75. 5
			1974. 3	76. 8
			77. 8	77. 8
			80. 10	80. 10
			81. 9	81. 9
			82. 4	82. 4
			85. 7	85. 7
			14	27
			24	12
			3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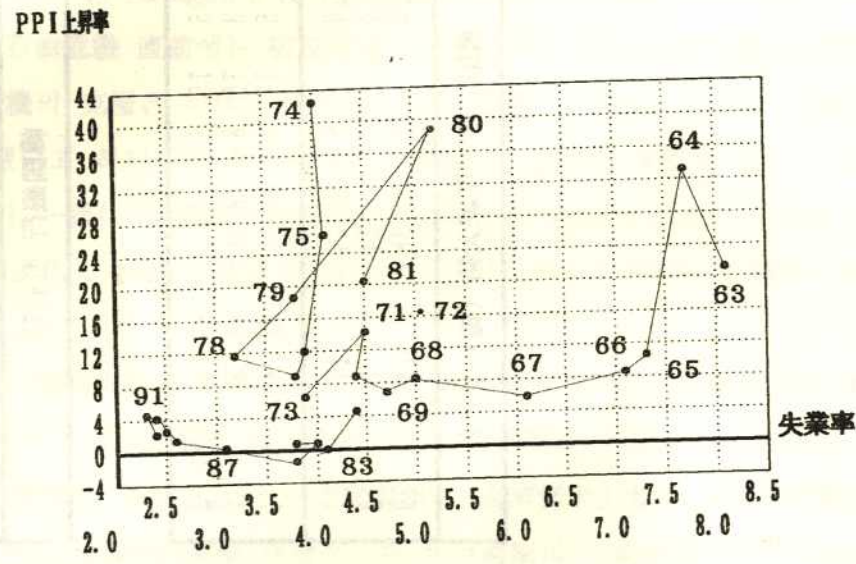
握時の「公約」을 지켜 民選으로 出馬하고 制服을 갈아입은 指導者로서 그대로 權力을 維持한 事例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經濟危機는 民間과 軍部指導層과의 同盟關係에 금이 가고 極端的인 境遇에는 政治指導者의 목을 바꾸어 다는데까지 發展한 다. 그렇지만 朴正熙의 第3共和國은 軍人 大統領이 軍部指導層을 누름에 따라 經濟政策의 옮겨 그를 둘러싼 軍 内部的 派閥 抗爭을 未然에 막는데 成功한 別로 없 는 事例의 하나라고 한다(Haggard & Kaufman). 그렇지만 實際로는 大統領과 軍部의 「密月」도 石油危機 直前에는 破綻되고 「大統領의 쿠데타」 敢行後의 維新體制에 의해 經濟危機의 克服은 可能하게 됐다. 한편 臺灣의 境遇에는 만약, 内部的 政策論爭이 激化됐다고 하더라도 派閥抗爭으로 發展한 深刻한 事態를 招來한 危險性은 黨·政·軍이 一體化한 構造에 의해서 最小限으로 抑制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臺灣의 「制度化」 秘訣은 반드시 장개석 一家의 카리스마적인 性格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韓國과 臺灣政府의 市場介入 形편에 대해서 附言해둔다. 東아시아 諸國의 官民關係에 대해서는 溫情主義的(家父長的) 介入이 基調를 이루고 있다고보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確實히 溫情主義的인 官民關係는 國家資本主義의 必須不可缺한 要素의 하나라고 봐도 靚찮다. 實際 개별적으로 여러國家의 市場介入方法을 比較해보더라도 비슷한 戰略과 政策手段의 採用이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事實을 國家資本主義 그 自體의 特性이라고 하기보다는 國家의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觀察되는 事實이고 結局 程度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溫情主義的 市場介入을 東아시아 特有的 「異質」性 特히 儒敎文化와 直結되는 論調는 相當히 短略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但只, 類似한 制度를 導入했다고 해도 各各의 國家마다 社會的 文化的인 背景이 다르면 制度의 機能과 遂行에도 差異가 생긴다. 東아시아 혹은 韓國과 臺灣의 「異質」性을 論한다고 하면 이 論脈에 따라 행하는 것이 至當할 것이다. 내쇼날리즘과 마찬가지로 制度도 또한 「特許權 設定이 不可 能한 發明」(Anderson)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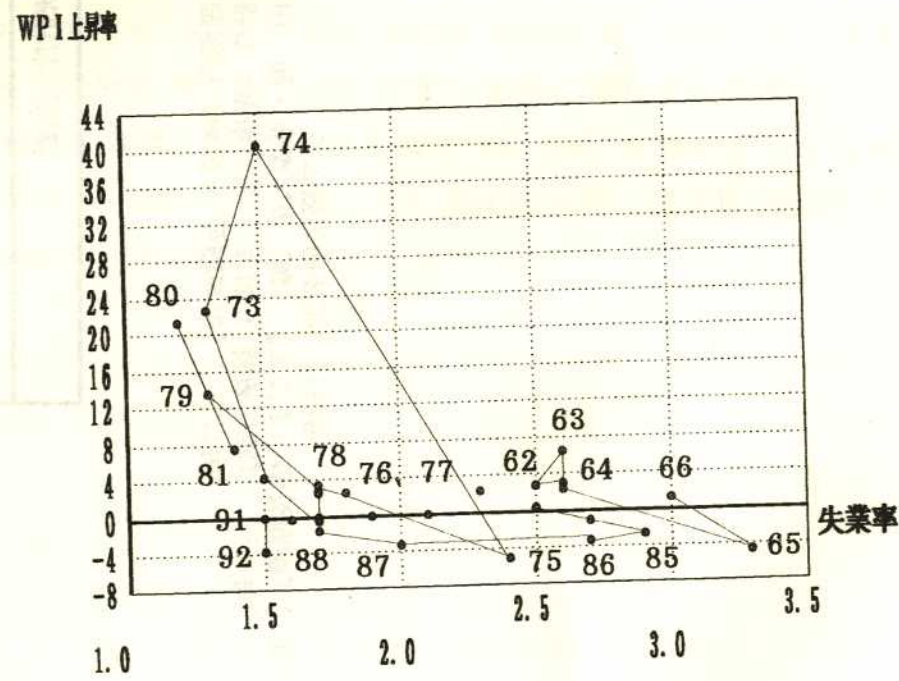


# Phillips Curves for Korea & Taiwan

韓国のフィリップス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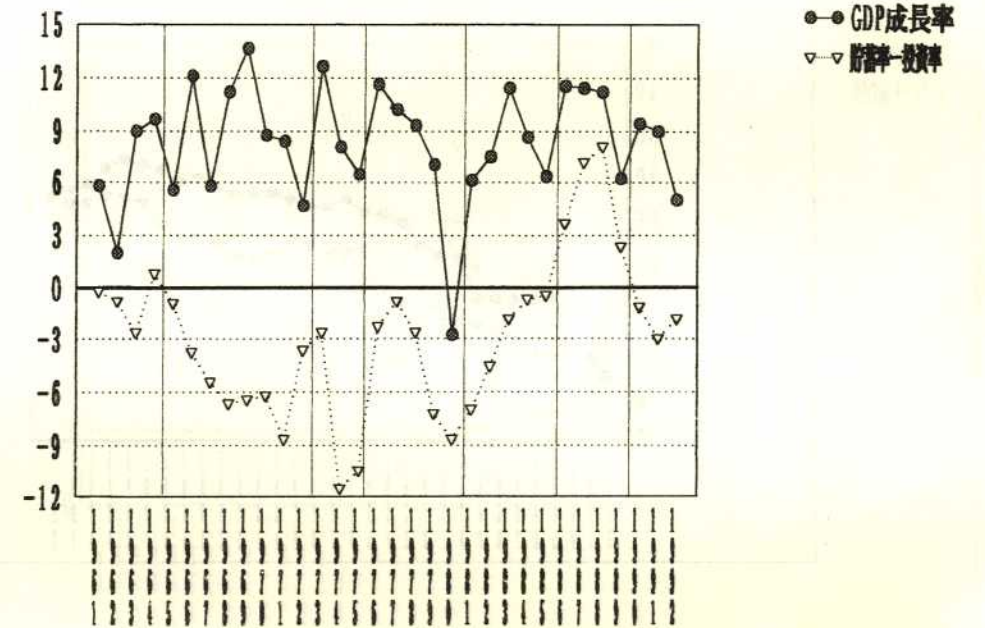


台湾のフィリップス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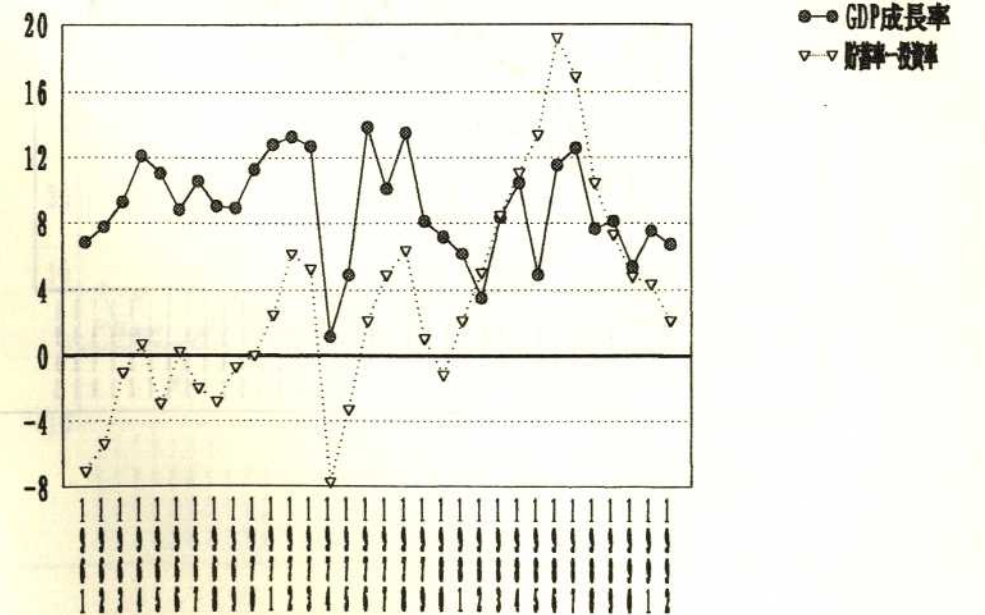


# Growth Rates & IS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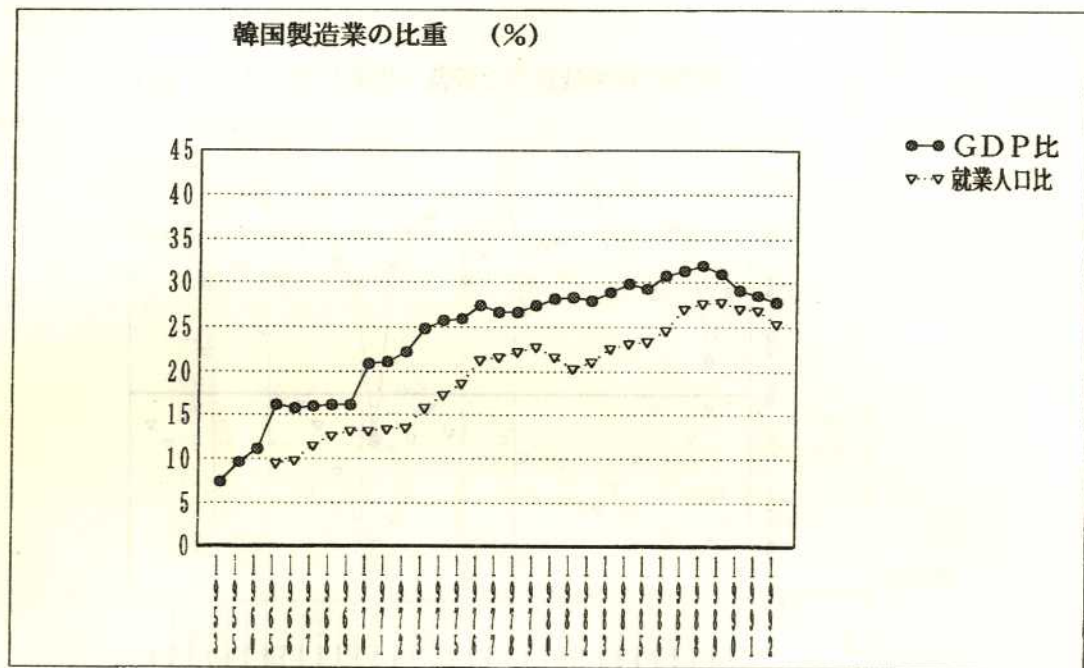
韓国の経済成長率と貯蓄・投資バラン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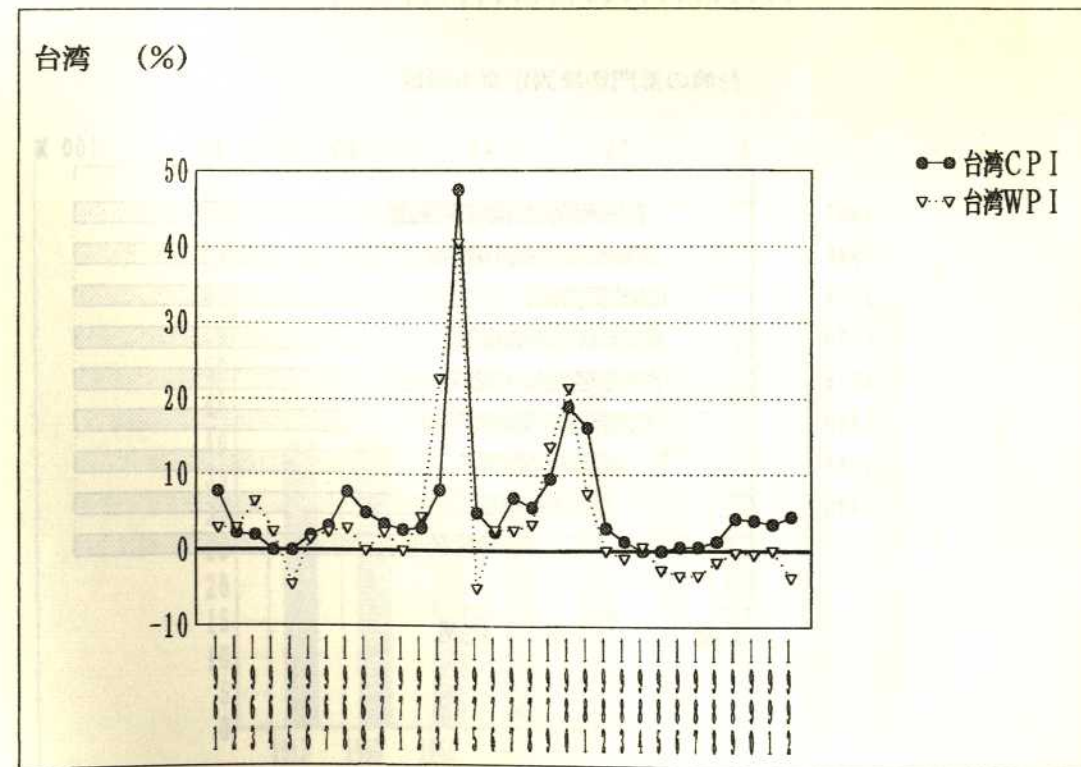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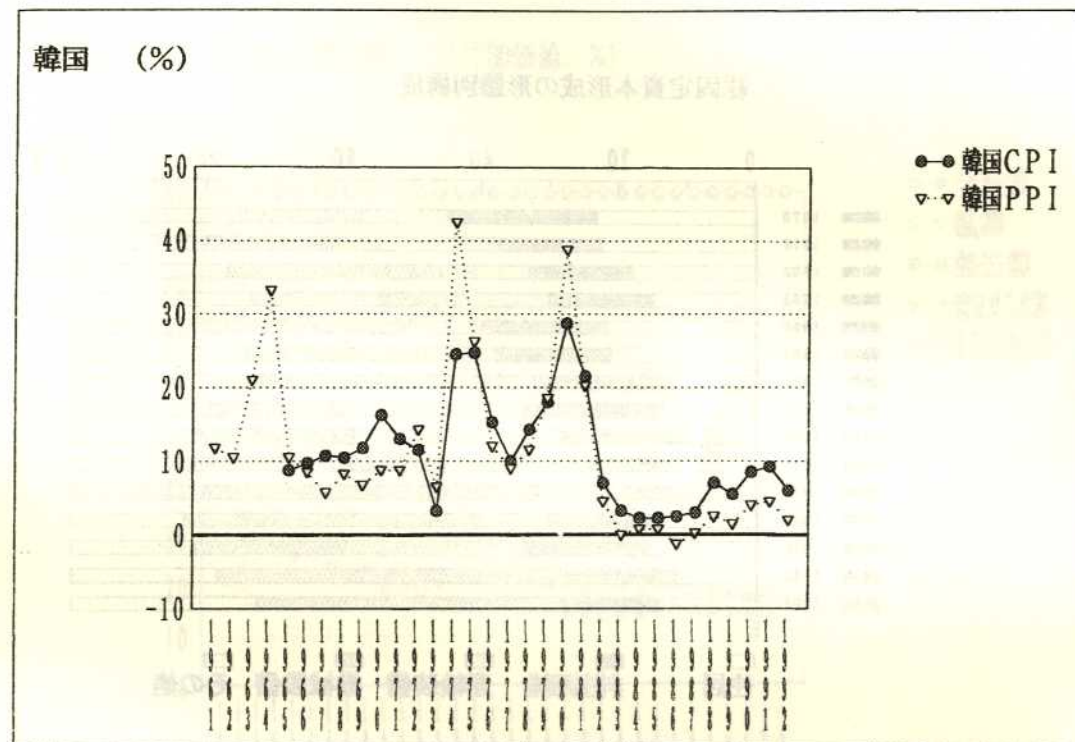
台湾の経済成長率と貯蓄・投資バランス (%)



韓台工業化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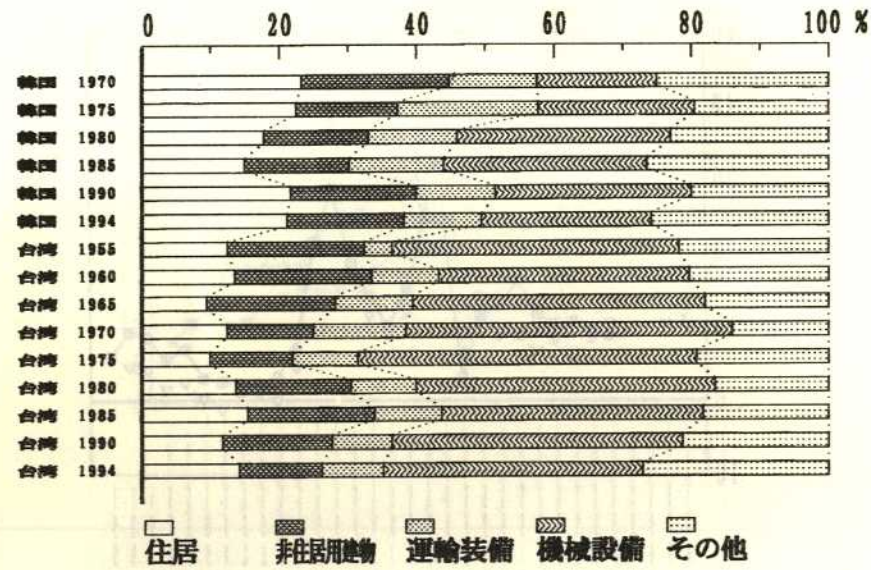


物価上昇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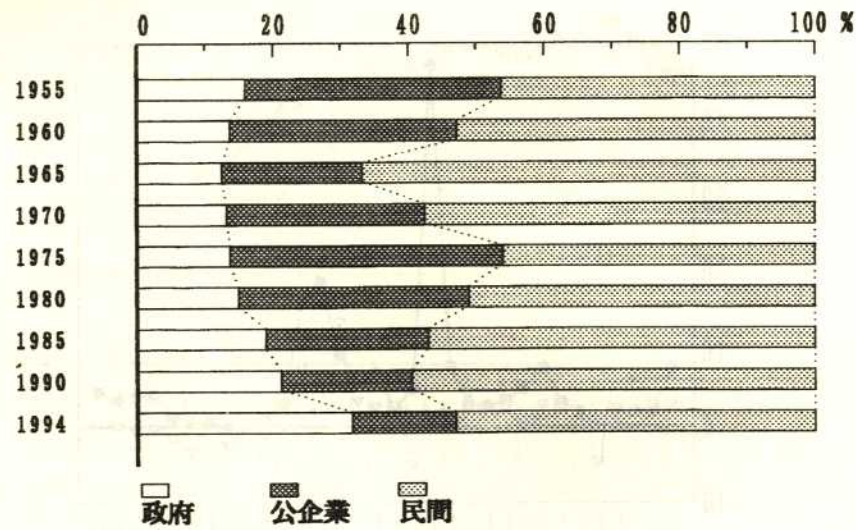
投資の構成

総固定資本形成の形態別構成



住居 非住居建物 運輸装備 機械設備 その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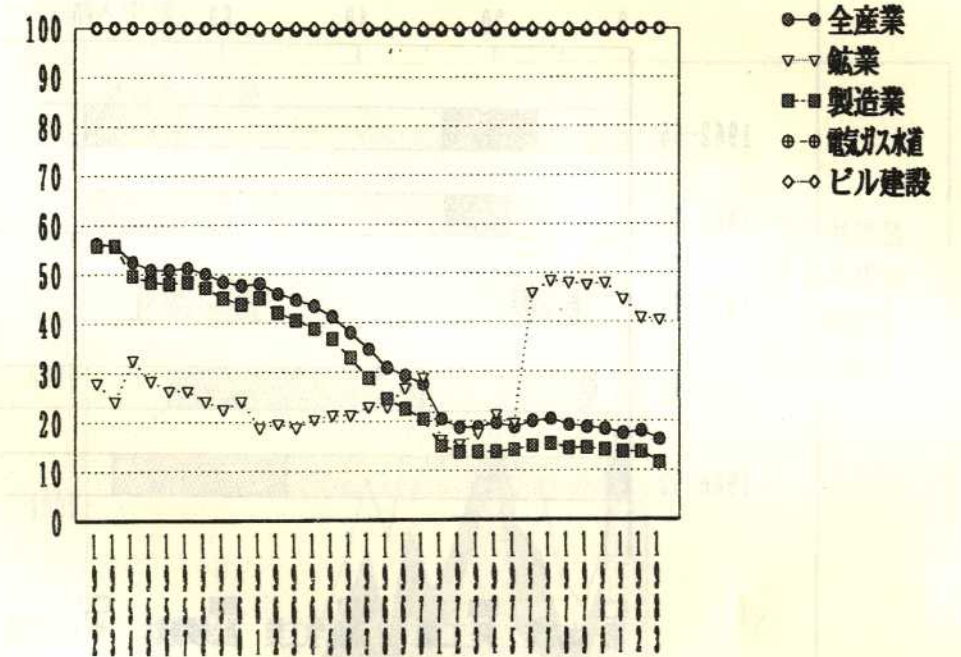
台湾の部門別総固定資本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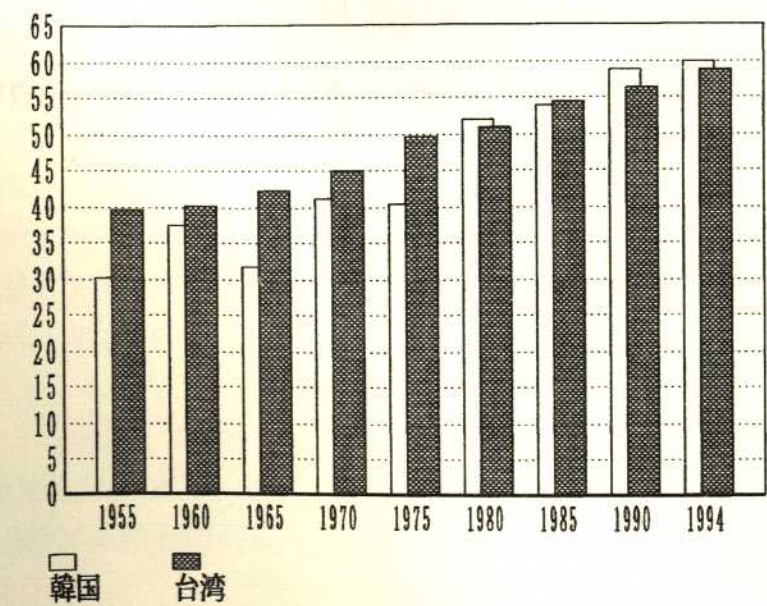
政府 公企業 民間

台湾の公企業と所得分配

台湾の公企業 (付加価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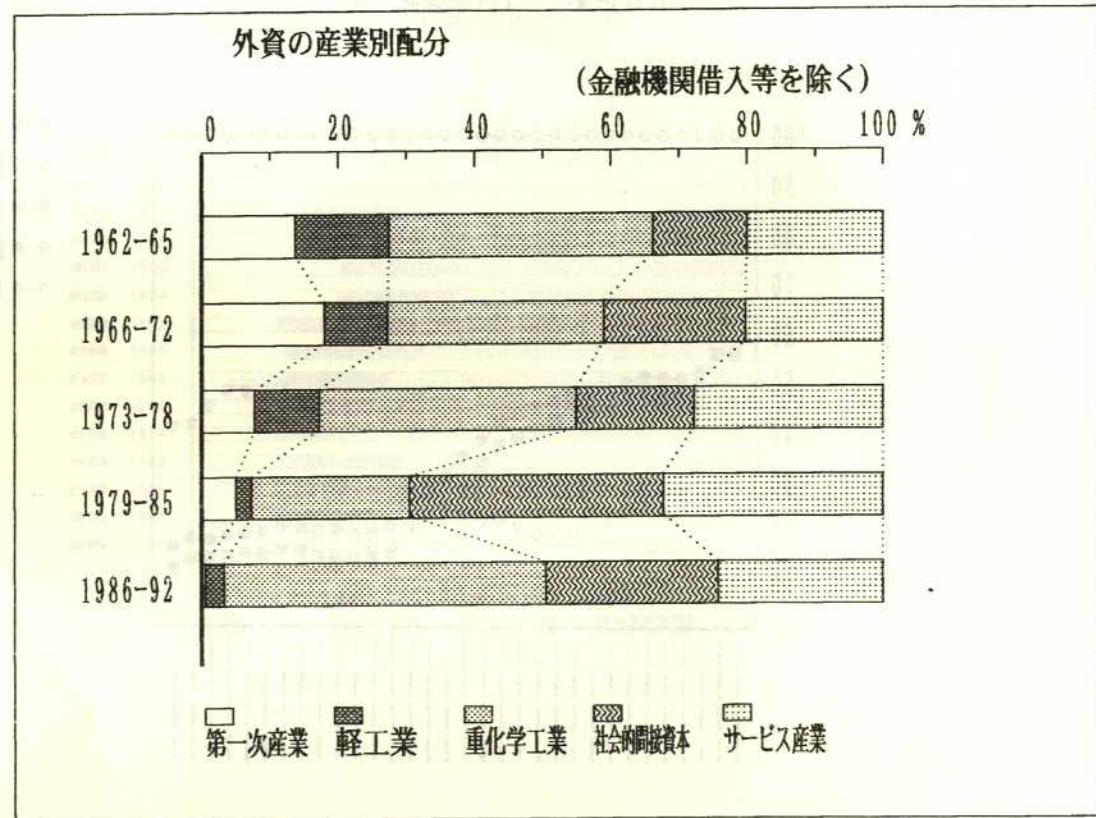


労働所得分配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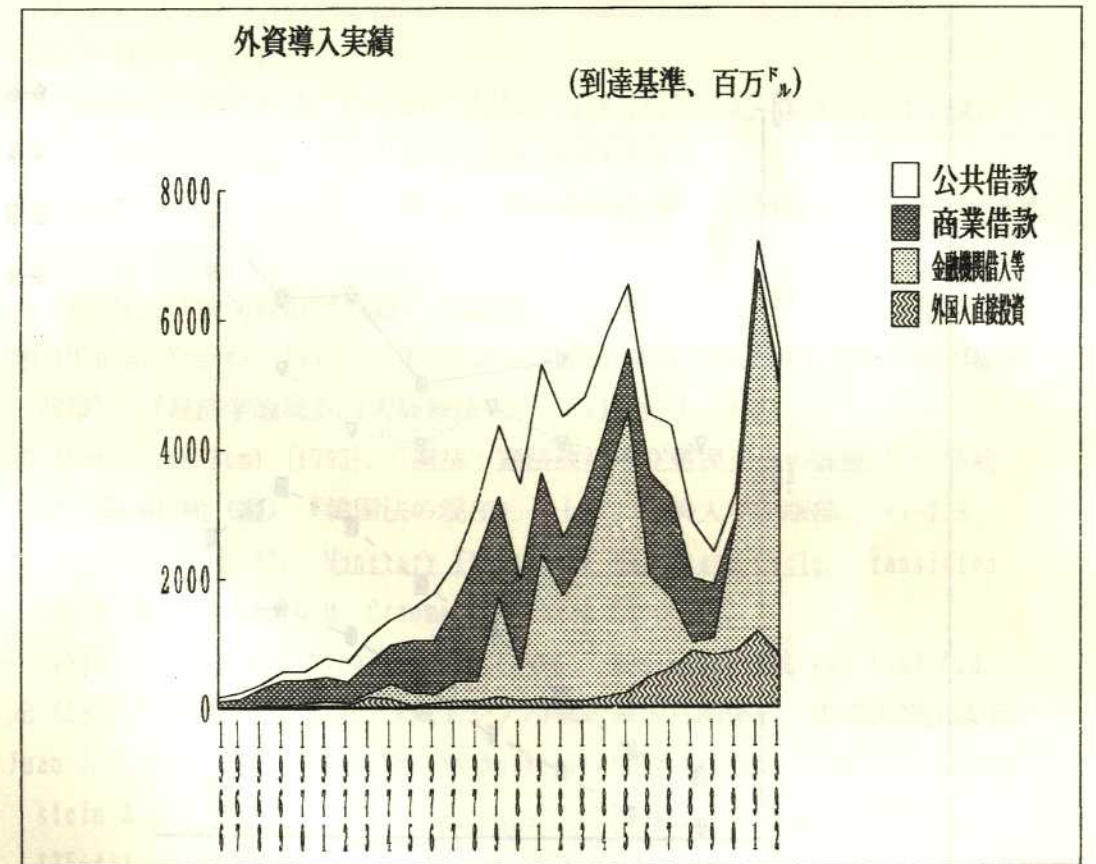
韓国 台湾

外資の産業別配分 (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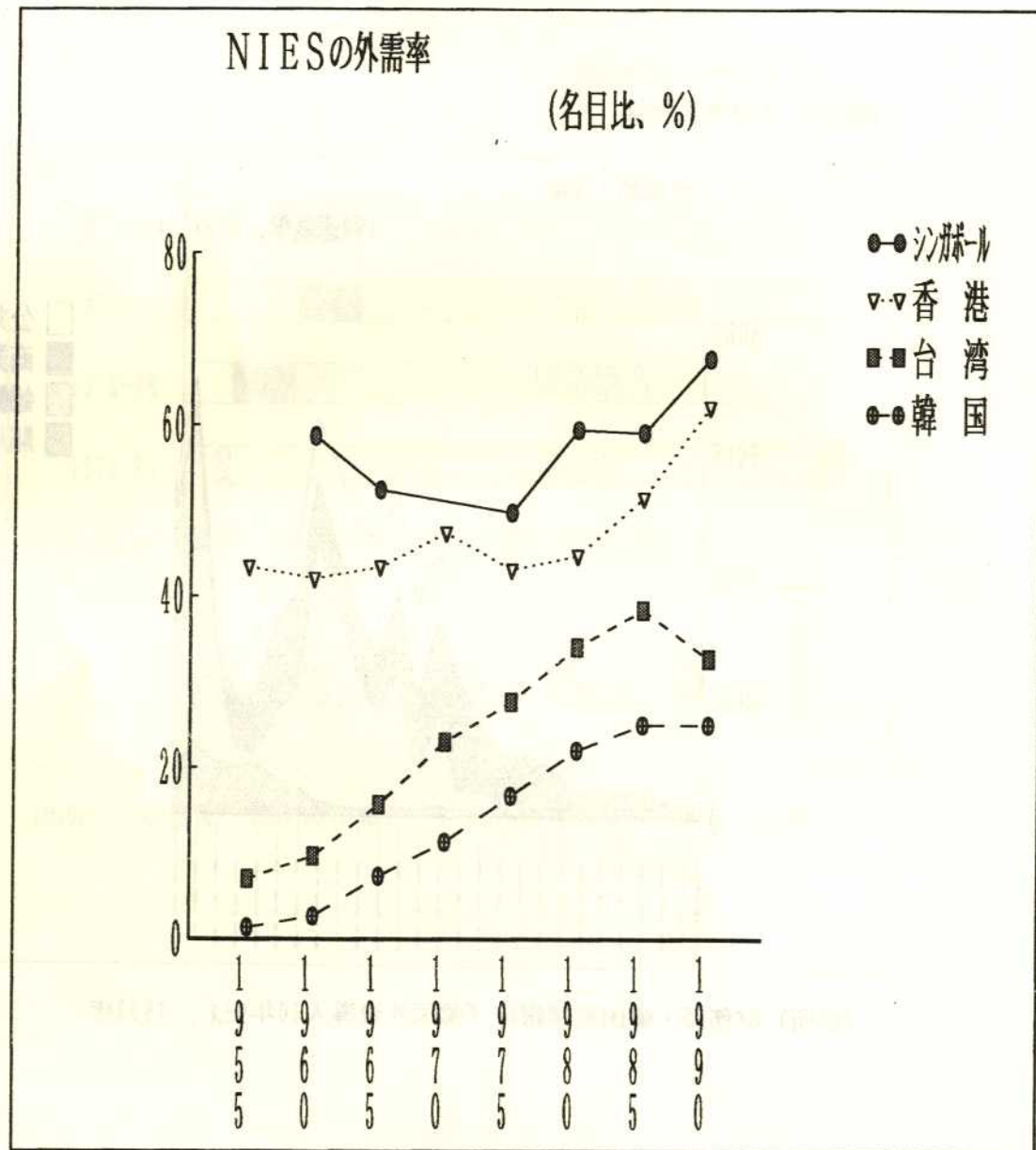
(出所) 財務部・韓国産業銀行『韓国外資導入30年史』, 1993年.

韓国 外資導入実績



(出所) 財務部・韓国産業銀行『韓国外資導入30年史』, 1993年.

NIESの外需率



外需率 = 輸出等 / (内需 + 輸出等) = 輸出等 / (GDP + 輸入等)

(出所) World Bank, World Tables および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参考文献

(\* : 韓国語, # : 中国語)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 崔章集 (Choi, Jang Jip) [1989].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Korea University Press.
- Haggard, Stephen & Robert R. Kaufman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韓培浩 (Han, Bai Ho) [1993]. 『韓国政治過程と変化: 権威主義政治の生成と展開』、法文社.
- \*—— [1994]. 『韓国政治変動論』、法文社.
- 韓義泳 (Han Hi-Young) [1995]. "韓国における開発独裁型経済開発計画と輸出振興政策", 『経済学論集』(大阪経法大), 11月号, 1-47.
- 韓相範 (Han, Sang Bom) [1993]. "憲法: 憲法政治と立憲民主化の課題", 小島武司・韓相範(編) 『韓国法の現在』(上)、中央大学出版部, 141-228.
- Hayek, Friedrich A. [1933].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translated by N. Kaldor and H.M. Croome, Jonathan Cape Ltd.
- [1935]. Prices and Production, 2nd ed., Routledge & Kegan Paul Ltd.
- 李鐘元 (Lee, Jong Won)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 東京大学出版会.
- Linz, Juan J.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I. Greenstein & N.W. Polsby (eds.), Nacropolitical Theory, Addison-Wesley, 175-411.
- 劉進慶 (Liu Jin-qing) [1975]. 『戦後台湾経済分析』、東京大学出版会.
-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3 Vols., The Twentieth Century Fund, Inc.
- 篠原三代平 (Shinohara, M.) [1991]. 『世界経済の長期ダイナミクス: 長期波動と大国の興亡』, TBSブリタニカ.
- 隅谷三喜男 (Sumiya M.)・劉進慶・徐照彦 [1992]. 『台湾の経済』、東京大学出版会.
- 田村紀之 (Tamura T.) [1996a] "韓国経済の到達点: その実力と苦悩(1)-(24)," 『統一日報』, 4月11日-6月1日号.
- [1996b]. "韓国の権威主義体制と民主化: 台湾との比較," 『途上国の経済発

171

展と民主化勢力の台頭に関する研究』, 統計研究会, 43-94.

谷浦孝雄 (Taniura, T.) (編) [1988]. 『台湾の工業化: 国際加工基地の形成』, アジア経済研究所.

—— [1989]. 『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 アジア経済研究所.

田弘茂 (Tien Hung-mao) [1989]. The Great Transiti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Republic of China. Hoover Institution Press.

—— (ed.) [1996]. Taiwan's Electoral Politics and Democratic Transition: Riding on the Third Wave. M. E. Sharpe, Inc..

\*蕭峯雄 (Xiao, Feng-xion) (編) [1994]. 『我国産業政策与産業発展』, 遠東経済研究顧問社.

尹龍澤 (Yoon, Yong Taek) [1996]. "韓国憲法の経済条項の変遷に関する一考察: 解放後の廢墟から高度経済成長への離陸まで," 奥島孝康・千野直邦他『現代企業法の諸問題』, 成文堂, 39-68.

\*余英時 (Yu Ying-shi) 『中国近世宗教倫理与商人精神』, 連経出版事業公司, 1987年.

\*周添城 (Zhou, Tian-cheng) [1991]. 『台湾産業組織論』, 二十一世紀基金会.